Serenade No. 10 in B-flat major, K. 361 "Gran Partita"

- □□

정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B♭장조 세레나데 K. 361/370a 《그랑 파르티타》

개요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작품명: B♭장조 세레나데, K. 361/370a(관용명 《그랑 파르티타》)
장르: 13인 관악 앙상블을 위한 세레나데
편성: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셋호른 2, 바순 2, 호른 4, 더블베이스 1
구성: 일곱 악장
연주 시간: 약 45–50분
연대: 신판 Neue Mozart-Ausgabe는 1783년 말 또는 1784년 초보다 이른 작곡을 뒷받침하지
않으며, 1781년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도 있음

Neue Mozart-Ausgabe: https://dme.mozarteum.at/DME/objs/pdf/nma_165_-21_-3_eng.pdf

Köchel-Verzeichnis: https://kv.mozarteum.at/en/work/parthia-in-b-flat-for-wind-ensemble-a-12-and-kontrabass-4618

이 작품은 두 미뉴에트, 느린 Adagio 와 Romanze, 변주곡, 빠른 Finale 를 포함한 일곱 악장의 관악
세레나데다 . 느린 악장과 춤곡이 번갈아 배치되고, 한 악기군 안의 독주와 합주가 계속 바뀌어 13명의 소규모 편성이 교향악적인 폭을 만든다. “Gran Partita”는 널리 쓰이는 별칭이지만 모차르트가 붙인 제목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며, 안전한 식별명은 K. 361 또는 K. 361/370a다.

연대와 공연 기록

자필 첫 면의 “1780”은 나중에 다른 손으로 보정된 표기로 보이며, 신판 편집자들은 1783년 말 –1784년 초보다 이른 작곡을 지지하지 않는다. Roger Hellyer는 자필 용지와 빈의 바셋호른 활동을 바탕으로 1781년 여름 가능성을 검토한다. 어느 한 연대를 확정하기보다 이 두 판단의 차이를 남겨 두는 편이 정확하다.

확실하게 작품을 가리키는 생전 기록은 1784년 3월 23일 빈 국립극장에서 안톤 슈타들러 선배의 자선 공연을 알린 공고다. Johann Friedrich Schink의 회고는 4개의 호른, 두 대씩의 오보에 ·클라리넷 ·바셋호른 ·바순과 콘트라바이올린 , 곧 더블베이스로 해석되는 저음 악기를 언급한다. 회고의 “네 악장 ”이 일곱 악장 중 어떤
선택을 뜻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 오늘날의 일곱 악장 전체가 그날 축약 연주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판 정보와 제목

모차르테움의 공식 표목은 “12개의 관악기와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B♭장조 파르티아 ”에 해당하는 명칭이며, K. 370a는 구 (舊) 쾨헬 번호다. 자필에 보이는 gran Partitta 는 사후에 다른 손으로 더해진 표기로 판단된다. Arts et Industrie의 후대 표지에 적힌 “Grande Sérénade”와 피에르 드 브라운 남작 헌정 문구도 출판업자가
붙인 제목과 문구일 가능성이 크므로, 작곡 당시의 공식 헌정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소요 시간

BIS 해설과 일반 개요는 약 50분을 제시하고, 기존 공연 자료는 45–50분 범위를 사용한다. 반복기호를 얼마나 지키는지, 템포와 녹음 편집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 45–50분으로 예상할 수 있다.

편성

편성은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셋호른 2, 바순 2, 호른 4, 더블베이스 1이다. 즉 열두 관악기와 한 대의 저음 현악기, 총 13명이다. 신판은 더블베이스를 명시하고 있으며, 콘트라바순을 대신 사용하는 현대 연주 관행이 있더라도 원전 지정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Schink의 Kontravioline 을 더블베이스로 읽는 것은 신판 편집자의 해석이다.

일곱 악장

I. Largo – Molto allegro

느린 서주가 관악기의 호흡과 음역을 차분히 펼친 뒤 Molto allegro 가 이어진다. 여러 악기가 주제를 번갈아 맡는 소나타풍 진행이지만 , 현악 중심의 협주곡처럼 한 성부가 계속 앞에 서지 않는다. B♭장조를 중심으로 한 귀환이 이후 악장들의 조성 연결을 준비한다.

II. Menuetto – Trio I – Trio II

미뉴에트 사이에 두 트리오가 들어가며, 악기군의 조합과 음역이 각각 달라진다. 춤곡의 규칙적인 틀 안에서 바셋호른과 클라리넷의 어두운 중음, 오보에와 호른의 밝은 층이 번갈아 드러난다.

III. Adagio

E♭장조의 느린 악장은 클라리넷과 바셋호른이 노래하는 선율을 주고받는 부분이다. BIS 해설이 “오페라적 ” 이라고 부르는 표현력은 성악이 없는 관악 앙상블에서 호흡과 장식음으로 만들어진다 . 이 명칭은 작곡가가

붙인 표제가 아니라 후대의 청취 분석이다.

IV. Menuetto – Trio I – Trio II

두 번째 미뉴에트 역시 두 트리오를 갖는다. 첫 트리오의 B♭단조 대비와 두 번째 트리오의 목가적인 렌틀러 성격이 춤의 외형을 넓히며, 각 악기의 짧은 독주가 13인 편성의 실내악적 대화를 만든다.

V. Romanze (Adagio – Allegretto – Adagio)

바깥의 Adagio 가 E♭장조의 안정된 노래를 만들고, 가운데 Allegretto 가 C단조로 어두운 대비를 이룬 뒤 처음의 속도로 돌아온다. 선율의 대칭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클라리넷 ·바셋호른 ·바순의 음색을 바꾸어 같은 재료를 새롭게 들려주는 방식이다.

VI. Tema con variazioni

B♭장조 주제가 제시된 뒤 여러 변주에서 관악기들이 차례로 앞에 선다. 신판과 BIS 해설이 기록하는 변주
순서는 음역과 발음법을 조금씩 바꾸고, 네 번째 변주의 B♭단조와 다섯 번째 Adagio 가 중간의 긴장을 만든다. 끝으로 빠른 삼박자의 변주가 다음 Finale 를 준비한다.

VII. Finale

빠른 론도 성격의 마지막 악장은 앞선 춤곡의 활기를 되돌린다. 주제가 악기 사이를 짧게 이동하면서 앙상블 전체가 한꺼번에 커졌다가 다시 실내악적인 대화로 줄어든다. 일곱 악장을 마감하는 밝은 귀환이지만 , “Gran Partita”라는 별칭이 가리키는 장대한 규모는 대편성보다 이 정교한 관악 교대에서 비롯된다.

연주 전승과 녹음 자료

1784년 자선 공연 공고는 이 작품을 특정하는 최초의 확실한 문서이자 안톤 슈타들러 주변의 관악 연주
관행을 보여 주는 자료다. 이후 어떤 악장을 선택했는지에 관한 직접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MusicBrainz는 네빌 매리너와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가 1984년 7월 25–27일 런던 Henry Wood Hall에서 녹음한 사례를 연주자 ·제작 맥락과 함께 식별한다. 이 메타데이터는 녹음의 시기와 편성을 확인하는 자료이며, 최초 녹음이나 특정 해석의 우위를 뜻하지 않는다.

주요 자료

International Mozart Foundation / Neue Mozart-Ausgabe, KV 361
Köchel-Verzeichnis, KV 361/370a
Library of Congress, “Radio Concerts: Gran Partitta”
Roger Hellyer, “Mozart’s ‘Gran Partita’ and the Summer of 1781” BIS Records, BIS-2463 booklet
MusicBrainz, “Serenade KV 361 ‘Gran Partita’”